시민일보
(2026년 11월23일 화요일 4면)

송파구 내년 예산 1조4467억 심의 본격화

구의회, 내달 17일까지 정례회

서울 송파구의회(의장 손병화)가 지난 19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2월17일까지 2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구청장 시정연설이 진행됐다. 의회는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 등 3건이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의원 질의·토론에 이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3건 모두 가결돼 확정됐다.

20~27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30일~12월2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를 진행한다. 12월3일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이어 7~9일 상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할 '2027년도 송파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조4467억89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 1조3039억5300만원보다 1428억3500만원(10.95%) 증가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3993억3300만원으로 올해보다 1516억8000만원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474억5500만원으로 88억4500만원 감소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8487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이는 일반회계의 60.6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어 일반공공행정 824억원, 환경 700억4700만원, 보건 509억9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18억2600만원, 교육 316억9400만원, 문화·관광 252억82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세입예산 가운데 지방세는 올해보다 543억8300만원 증가한 3491억2200만원, 세외수입은 163억원 늘어난 1377억8400만원이다. 국고보조금은 7032억3000만원, 지방교부세는 254억58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729억14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12월10~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